NH투자증권

건설

Re-Construct 01: 건설업 차선호주

단기적으로는 '25년 수주 공백 최소화, 중장기적으로는 신사업이 주택 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건설업종 내 최선호주 현대건설, 차선호주 GS건설 제시

Analyst 이은상
02)2229-6841, eunsang.lee@nhqv.com

단기: '25년 수주 실적

1)'25년 수주 실적, 2)신사업의 방향성 등을 감안 시 건설업종 내 최선호주 현대건설, 차선호주 GS건설 제시

금리 인하, 재정 투입, 수도권 공급 물량 감소 등 업황 반등을 의미하는 시그널들이 감지되고 있음. 다만, 시그널과 건설 수주 확대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6M~12M)에서 올해 수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

1Q25 수주 가이던스 달성률은 GS건설 33%, 현대건설 30%, HDC현대산업개발 23%, 삼성E&A 21%, 대우건설 20%, DL이앤씨 12%. 1Q25 기준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수주 실적 양호. 2Q25 실적 발표 내용 중 기업별 수주 달성률에 주목할 필요 있음. 참고로 '25년 수주 가이던스와 기업별 지난 5년('20~'24년) 평균 수주 실적 간 괴리율은 GS건설 3%, 현대건설 3%, HDC현대산업개발 22%, 삼성E&A 15%, 대우건설 14%, DL이앤씨 11% 등.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 후 발생한 시공사 해지분, 대우건설, DL이앤씨는 '24년 부족했던 해외 수주로 인해 일부 왜곡이 있음

중장기: 신사업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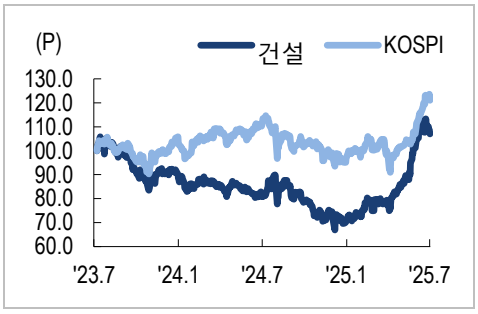
PF 사업의 구조적 변화, 부동산 수요의 양극화 현상 등을 감안 시 과거와 같은 주택 사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중장기적인 관점(12M~)에서 주택 매출 의존도를 낮춰줄 신사업과 해당 사업의 수익성 가이드라인이 중요. 원전 사업으로 대표되는 현대건설이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유망

다음으로 주목할 종목은 GS건설. GS이니마 매각 가시화, 수익성 낮은 해외 스틸 모듈러 자회사의 청산 결정으로 신사업 재편 기대감 상승. 또한 국내 건설사 중 데이터센터 시공 레코드를 최다 보유. 운영 지분 매각을 통한 이익 증대도 가능. AI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을 감안할 때 동사의 데이터센터 사업은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

Positive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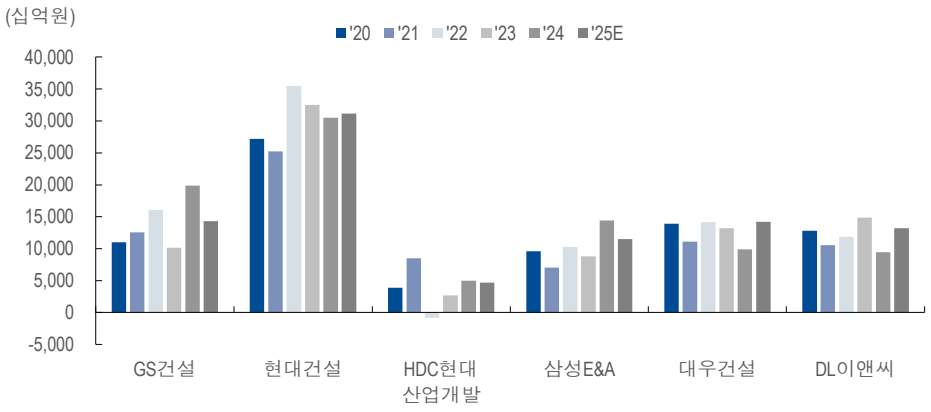
	PER(배)	PBR(배)
KOSPI	11.9	1.1
Sector	8.7	0.6

Sector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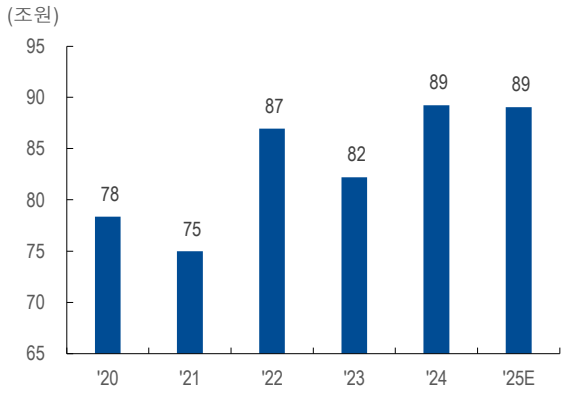
업종 시가총액 30,297십억원 (Market 비중 1.0%)
주: KRX 업종 분류 기준

그림1. 기업별 '20~'24년 수주 실적과 '25년 수주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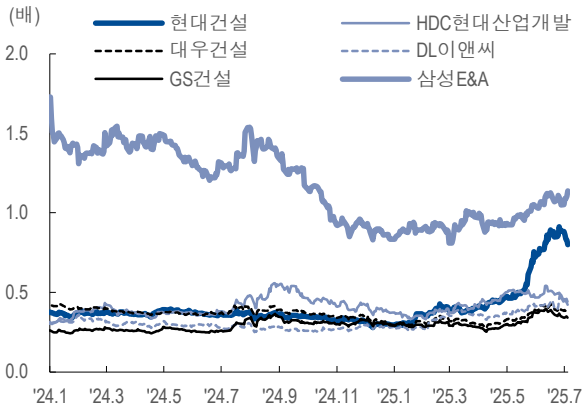
자료: 각 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커버리지 기업 합산 수주 추이



자료: 각 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기업별 12M Trailing PBR 추이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15% 초과
   - Hold: -15% ~ 15%
   - Sell: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30일기준)
   - 투자의견 분포

Buy	Hold	Sell
87.3%	12.7%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공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대건설"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